

최신 ICT 이슈

II. FIFA 분석팀이 밝힌 러시아 월드컵의 전술 트렌드는 “압축 수비”

- FIFA(국제축구연맹)가 세계 최대 스포츠산업 컨퍼런스인 SSAC 2019에 참석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드러난 최신 전술 트렌드를 소개하였음

- ▶ FIFA의 기술위원회(Technical Study Group)에는 선수와 팀의 분석을 전담하는 “퍼포먼스 및 게임 분석” 부서가 따로 있으며, 선수와 팀의 퍼포먼스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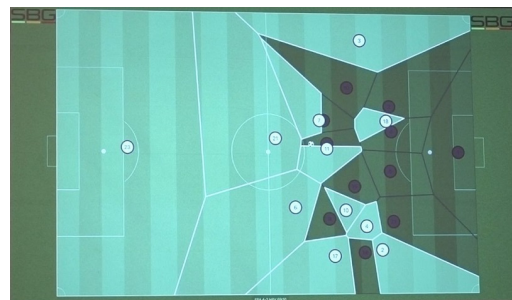


〈자료〉 FIFA

- ▶ 이 분석 전담 부서의 책임자인 크리스 록스턴은 지난달 보스턴에서 열린 “MIT Sloan Sports Analytics Conference (SSAC) 2019”에 참석하여 4년 전 대회에 비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눈에 띈 전술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음

[그림 1] 러시아 월드컵의 전술 트렌드, ‘압축 수비’

- ▶ 록스턴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얻은 인사이트 중 하나로 “컴팩트 디펜딩(Compact Defending)”, 즉 수비 시스템을 촘촘하게 하는 전술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들었음



〈자료〉 FIFA

- ▶ 컴팩트하다는 의미는 공간을 조밀하게 해 수비진을 밀착시킴으로써 상대 공격진의 ‘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상대방이 공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하

[그림 2] 압축 수비 상황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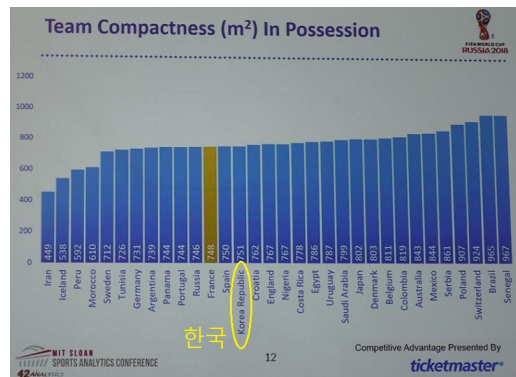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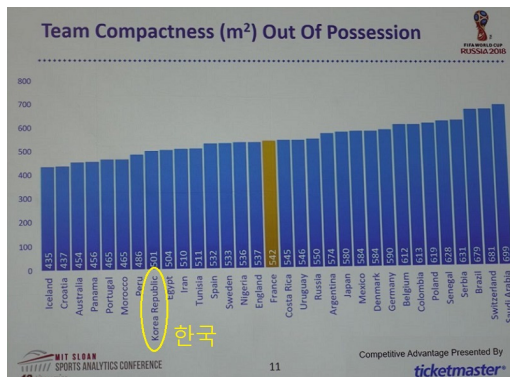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는 것임

- ▶ 반대로 만일 우리팀의 빠른 공격을 위해 포워드 등 앞선의 선수를 전방에서 내려오지 않게 둔다면 상대방이 공격하기 쉽게 ‘공간’을 내주게 되는데, 이로써 ‘시간’과 ‘공간’은 상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 가령, [그림 2]에서 하늘색 영역은 공격진의 각 선수가 이동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며, 상대 진영 안쪽 깊숙이 파고들려 하지만 수비진이 매우 밀집해 있어 공격진을 그 속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록스턴에 따르면, 특히 이번 월드컵만큼 수비가 조밀하게 이루어져 공격을 위한 공간을 지운 월드컵 대회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함

- ▶ 록스턴은 비교를 위해 우선 압축 수비 흐름과 동떨어진 팀으로 브라질을 예로 들었으며, 브라질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965m²의 넓은 면적에서 움직였고,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679m²의 넓은 면적에서 움직였음
- ▶ 그 다음 참가 32개국의 팀 공간 분석(Team Spatial Analysis) 데이터를 비교했으며, 우승팀인 프랑스는 수비 시에 542m²의 공간에서 움직였고 이는 전체 국가 중 중간 정도였음
- ▶ 특징적인 팀은 준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인데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 움직인 면적이 437m²로 아이슬란드(435m²)에 이어 두 번째로 좁았음



<자료> FIFA

[그림 3] 참가국별 공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움직인 면적(좌)과 소유하고 있을 때 움직인 면적(우)

- ▶ 한국은 501m²로 전체에서 8번째로 수비 면적이 좁았으며, 가장 수비 면적이 넓었던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699m²), 스위스(681m²), 브라질 순이었음

- ▶ 한편,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프랑스 대표팀은 748m²의 면적을 움직였는데 이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좁은 것이었고, 크로아티아는 762m²로 전체 평균에 가까웠으며, 한국은 크로아티아보다 약간 좁은 751m² 면적에서 움직였음
 - ▶ 록스턴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진형 면적의 차이 분석을 통해, 우승팀 프랑스에 비하면 다른 나라는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컴팩트한 수비로 강한 적의 공격을 막으려 했던 성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 **분석에 따르면 수비 시에 진형을 압축한 결과 페널티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슈트를 하는 것이 어려워져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 지난 세 번의 월드컵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이루어진 슈팅의 수를 비교하면,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는 1,000개였던 것이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788개로 줄었고, 지난 러시아 대회에서는 684개로 현저하게 줄었음
 - ▶ 슈팅이 줄다 보니 페널티 지역 밖에서 찬 슈트가 실제 골로 이어진 수도 줄었는데, 2010년 대회에서 36개였던 것이 2014년 대회 때는 42개로 늘었지만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29개로 급감해 수비를 압축하는 전술의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FIFA는 축구 경기의 비밀과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분석의 질을 계속 높여 나간다는 계획**
 - ▶ 록스턴은 이번 팀 공간 분석을 통해 컴팩트 수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분석을 통해 다양한 통찰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언급
 - ▶ 축구라는 경기는 1개의 경로, 1개의 슈팅으로 인해 역학 관계나 경기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는 스포츠인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축구 경기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나 기술의 발전에 의해 향후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함
 - ▶ 가령, 단순한 공간 분석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공을 차고 나서 슈트의 시도로 끝나는 일련의 플레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비의 프레싱(상대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
 - ▶ FIFA의 경기분석 담당 부서는 단순한 점유율 통계가 아니라 경기의 상황 맥락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며, 퍼포먼스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FIFA의 경기 분석의 질도 향상되어 갈 것이라고 함

[참고문헌]

- [1] MIT Sloan, 3. 1, <https://bit.ly/2V97sdw>
- [2] Sport Innovators, 3. 27, <https://nkbp.jp/2CMJ1LO>